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1 주차 (롬 3:25~31)

(2017년 3월 19일 - 2017년 3월 25일)

(제5권 11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1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3월 19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 (주일)

오늘의 본문 (롬3:25~26)

- ²⁵ ὃν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ἱλαστήριον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 제물로 놓으셨다)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εἰς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통하여)
- ²⁶ ἐν τῇ ἀνοχῇ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πρὸς τὴν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ῦ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그 자신도 의롭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있다. 율법을 지켜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이다. 부부가 살다가 불가피하게 헤어지는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 비해 착하게 산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 뿐인가? 우리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리학적으로 불가피하게 부정해져서 율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는 의와 거룩의 기준에 미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율법으로 온전해 지려고 했으니 당연히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으니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합당한 제사 절차도 없지 않은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지금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들이라면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인간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맘대로 율법을 시대에 따라 입맛대로 취사선택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오늘날 율법을 목숨걸고 지키려는 유대인들 중 누구 하나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아니 설령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드린다 해도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 시대에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 따른 것도 아니니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지어 불의한 상황에 처한 사람, 자신의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제사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레위기인데 거기에 따르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다. 이들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와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제사로 나눌 수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제사다. 그런데 자원 제사인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화목제는 동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번제 방식으로 드리는데 대부분의 번제가 짐승을 전부 태워 드리는 제사임에 반해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를 태우지 않고 남겨 두어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나누어 먹도록 한 매우 특이한 제사다.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먹기 위해 별도로 남겨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먹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화목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스라밌(סְרַמִּית)이다. 스라밌는 세렘(סֶרֶם)의 복수형으로 평화를 나타내는 살롬과 어

근이 같다.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는 평화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 하고는 살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평화는 반드시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화목 제물이 단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냥 번제로 드려 고기를 다 태우면 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인간에게 주어 서로 나누어 먹도록 하셨다. 그 이유는 화목 제물이 단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살림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간의 살림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사실 예수님은 제사보다 형제 간의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자.

“²³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²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이 말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각자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요 인간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신다. 다른 성도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대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다.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할 게 남아 있다.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해서 저절로 인간들끼리도 화목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들끼리 화목하기 위해 실수한 사람이 먼저 상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다. 때론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하나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화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치스런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이야말로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별거벗은 채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살림을 이루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깟 자존심 하나 때문에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난다면 당장 그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살림을 회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림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그 살림을 누리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 몫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화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3:25~26)

- ²⁵ ὃν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ἱλαστήριον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 제물로 놓으셨다)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εἰς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통하여)
²⁶ ἐν τῇ ἀνοχῇ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πρὸς τὴν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ύ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그 자신도 의롭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제물에 관해 좀더 깊이 알아보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제물을 드린 것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유월절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식구끼리 또는 몇 집이 모여서 머릿수 대로 양을 잡았다.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문밖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집 안에서 구워 먹었다. 당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준 유월절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³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⁵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⁶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⁷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⁹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¹⁰ 아침까지 남겨 두지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¹¹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3-11).

유월절 희생양을 잡은 직접적인 이유는 장차 임할 장차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되, 식구가 적으면 다른 이웃과 함께 양을 잡도록 했다. 양을 잡아 피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그날 밤에 다 함께 먹어야 했다. 물론 고기는 남기면 안 되고 먹다 남은 것은 전부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편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도록 해서 가족간, 이웃간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어린 양의 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고기로는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화목을 재연하셨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상 만찬이 그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복음서마다 다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석해 주

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이후 이어지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백방으로 그분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난해한 설교를 하셨다.

“⁶³...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⁶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⁶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⁶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⁶⁷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요 6:53-57).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자.

“²⁶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⁷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²⁸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적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고 피를 흘리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다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웃과 부대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요 사랑이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반드시 실제적인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진정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이웃과의 화목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⁴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⁴⁹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리면 이웃을 어떻게 대할까요?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3:25~26)

- ²⁵ ὃν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ἱλαστήριον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 제물로 놓으셨다)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εἰς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통하여)
²⁶ ἐν τῇ ἀνοχῇ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πρὸς τὴν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ύ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그 자신도 의롭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화목, 그리고 택한 백성들 간의 화목으로 입증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화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어떤 이들은 아예 당연시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단지 놀라운 사건 정도로만 여긴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들이 지어 낸 신화로 치부하면서 실상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바로 화목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다. 평화다. 그의 오심이 곧 살림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살림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살림을 위해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죄로 인한 긴장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났다. 사도 바울은 예베소서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담이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살림이라고 설명했다.

“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¹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¹⁵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¹⁸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3-18).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것이 화목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화평이요, 살림이다. 그가 없이는 우리는 누구와도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없다. 화목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그분은 우리와 원수된 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원수가 바로 인간들이 제멋대로 이해한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스러운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원수가 돼버렸다. 왜냐하면 죄를 깨뜨려주고 준 그 율법으로 인간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입증하는데 사용했고, 남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화목을 가져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목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담이 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이런 관계의 단절을 가져 온 율법을 소멸하신 것이다. 단절의 근원이었던 율법이 무너지자 자연스럽게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도 무너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았던 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인간들을 움아매고 차별하던 모든 기준들이 사라지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없어졌다. 이제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를 게 없기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몸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되지 않는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부자와 건강한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된다. 더 이상 율법을 준거로 의와 거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화목은 나의 기준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인간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가 옳다고 믿는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범한 인간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그것도 인간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치르시면서까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가 가진 선악 판단 기준을 내려 놓지 못한다.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힌 그 기준이 발동하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들은 높아지기 시작한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님의 피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이방인들은 그들만의 관습을 따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서로의 삶을 강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오직 그리스도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 검사도 판사도 그들이 정죄한 죄인도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죄를 지은 사람도, 의롭게 산 사람도, 노숙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도, 염치없이 그 밥을 받아 먹는 사람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누구도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다. 당신은 어떤가? 마음 한 구석 남들을 미워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서로에게 쌓인 마음의 응어리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눈 녹듯 사라지게 돼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로 인해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체험이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이 입증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3:25~26)

²⁵ ὃν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ἱλαστήριον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 제물로 놓으셨다)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εἰς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통하여)

²⁶ ἐν τῇ ἀνοχῇ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πρὸς τὴν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ύ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그 자신도 의롭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았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순순히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받아들이셨을까? 거기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다.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시킬 때가 많다. 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구원을 바라볼 때가 많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하고 가슴만 치던 세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아 다행이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떠한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천한 출신에다 남편을 여섯이나 둘 수 밖에 없던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바리새인들에게 덜렁 혼자만 끌려와 성전 마당에 내동댕이쳐진 한 여인, 수치심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은 그 여인과는 다르다며 여인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든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많은 이들이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며 그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데다가 그런 자들을 돕기까지 하니 더더욱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할 때도 많다.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감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감사한다. 언뜻 보기에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단지 우리를 그들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 여기며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정도로 자기가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대개 스스로를 의롭고 착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점이다. 이걸 단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잣대로는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던 세리나 손가락질 당하던 천한 사마리아 여인

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보다 어찌면 더더욱 부끄러운 존재들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냉엄하고도 엄중한 공의는 가장 고귀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함으로써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공의를 나타내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모두 달성된 것이 아니다. 공의만 실현할 뿐 그걸 통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풀이를 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인간의 의로움이 완성되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입증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비참함과 같은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서 덧입혀지고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릴 기세로 십자가를 향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마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⁴⁵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⁴⁶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중략)... ⁵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⁵¹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⁵²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⁵³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45-53).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로 집중되었고,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심판의 잔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은 심판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들과 맞바꾼 것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그렇게 달성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의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가짜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 의로운가? 당신의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로운가? 당신이 이 질문에 진실로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십자가 사건은 곧 당신의 사건이다. 각자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당신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자랑할 곳이 있느냐?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3:27)

²⁷ Ποῦ οὖν ἡ καύχησις; (그러므로 자랑할 곳이 있느냐?)
ἐξ ἐκλείσθη.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διὰ ποίου νόμου;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τῶν ἔργων; (일을 통해서냐?)
οὐχί, ἀλλὰ διὰ νόμου πίστεως. (절대 아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단 여섯 구절로 설명한 복음은 신구약을 통틀어 복음의 진수를 가장 완벽히 설명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헬리어 원어로 보면 이 여섯 구절은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 어떤 논문보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낸 의로움만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기로 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집중시킨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들이 정한 선악 판단 기준에 근거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모든 시도는 십자가 앞에서 산산히 무력화되고 말았다.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바울은 독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그러므로 자랑할 곳이 있느냐? 바울의 이 질문은 자랑의 근원지를 묻고 있다 인간들이 의롭게 된 원천이 어디냐? 그러면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원천들은 모조리 차단되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의로움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막아버리셨다는 의미다. 즉, 인간에게서는 어떤 의로움의 근거도 찾기 어렵기로 하셨다는 말이다.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핍박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핍박이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로 하고 돌로 치기까지 했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 온 반면 정작 유대인들은 그를 심하게 핍박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 세 번의 설교만 하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²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³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⁵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아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 내려고 찾았으나 ⁶ 발견치 못하매 아손과 밋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행 17:1-6).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대대 손손 율법을 지켜왔던 자신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다. 누구도 예외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떠한 길도 모두 차단하셨다. 이에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도 다 포함된다. 유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노숙자를 돌보는 선한 행위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마땅히 행할 선한 사역으로 인정받겠지만 구원의 근거로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표식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은 기독교인들만의 독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그 정도 인간에는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 나누어주는 식사 한 끼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가치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사랑이다. 인간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인간들의 선한 행위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다.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지혜자도 무식한 야만인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바리새인이거나 세리나, 누구나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의로 여기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상 인간에게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 인간들이 쌓은 모든 업적들은 아깝지만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그게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4-9).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바울조차 그 의를 배설물로 여겼다.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것을 도리어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의를 갖다 버렸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의만 붙들었다. 그는 자기가 붙든 의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선언했다. 진정한 구원은 자신이 그 동안 자랑해오던 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인간이 만들어 온 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의를 판단하실까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이나? 믿음이나?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3:28~30)

- ²⁸ λογίζομεθα γὰρ δικαιοῦσθαι πίστει ἄνθρωπον χωρὶς ἔργων νόμου.
(왜냐하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떠나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여긴다)
- ²⁹ ἢ Ἰουδαίων ὁ θεὸς μόνον; (또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나?)
οὐχὶ καὶ ἐθνῶν; (절대 아니다...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냐?)
ναὶ καὶ ἐθνῶν, (그렇다...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 ³⁰ εἴπερ εἷς ὁ θεός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ὃς δικαιοῦσσει περιτομὴν ἐκ πίστεως (믿음으로부터 나온 할례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
καὶ ἀκροβυστίαν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믿음을 통하여 무할례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모든 방법은 차단되었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녀 될 사람을 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다. 한 부잣집에 머슴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날 부자가 머슴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다. 어떻게 양자를 삼을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단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고만 했다. 그러자 머슴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 주인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한 머슴은 외아들 따라하기 전략으로 나갔다. 외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따라했고, 외아들의 식성까지 닮으려 했다. 그 머슴은 외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 했다. 다른 한 머슴은 특유의 성실성으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농사일을 할 때도 요령을 부리지 않았다. 또 다른 한 머슴은 앞서 말한 두 머슴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해 늘 실수 투성이인데다 느려터져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머슴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주인이 양자를 삼겠다고 발표한 날부터 중병에 걸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 주인의 외아들이 나서서 그 머슴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다. 모든 이들은 아파 드러누운 그 머슴은 일찌감치 탈락이라 생각했고 드러 누워 있던 머슴 자신도 양자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 집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가 양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드디어 양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다. 모든 머슴들이 뜰 안에 모여 주인의 발표를 기다렸다. 드디어 주인이 나타나서 양자될 머슴을 호명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호명된 자는 전혀 뜻밖에도 아파서 드러누워 있던 바로 그 머슴이었다. 그러자 나머지 머슴들이 화를 내며 결정에 반발했다. 사실 누가 보아도 불공평하다. 말도 안되는 결정에 반발하는 머슴들을 향해 주인이 말했다. “내 아들이 일을 했고, 그가 자신이 한 일의 모든 성과를 아파 드러누운 그 머슴에게 돌렸다. 나는 오직 내 아들이 한 일의 성과로만 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내가 한 결정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말라!” 그것으로 끝이다.

열심히 일한 머슴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이방인들의 사도임을 자처하며 로마 제국을

회저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동안 자신들이 독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하나님의 백성이이라고 딱히 혜택을 받았다기보다는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으니 말이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갈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⁷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⁸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6-8).

그리스도인은 모두 약속의 자녀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려면 두 그룹을 구분 짓는 율법이 사라져야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율법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만들어 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기로 하셨다. 그러니 인간들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 삼기로 했다면 우리도 그 기준으로 의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 우리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원래 율법이라는 기준조차 주시지 않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더 이상 인간의 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 짓던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⁹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¹⁰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¹¹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8-13).

우리같은 이방인들에게 정말이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1500년 이상 유지해 오던 율법을 떠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어서가 아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글자 때문이다. 그리스도인...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왜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의 의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셨을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율법을 세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3:31)

³¹ νόμον οὐκ καταργοῦμεν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폐하느냐?)
μη γένοιτο·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ἀλλὰ νόμον ἰσχύνομεν.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세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직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²⁵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²⁶ 이는 마케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²⁷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롬 15:25-27).

바울은 마케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거둔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행보를 막고 나섰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게다가 예언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바울을 만류하며 여정을 취소하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다. 그때 야고보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⁴⁹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²⁰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²¹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행 21:19-21).

바울이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며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 어떤 이들이 바울이 모세 율법과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모함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참으로 억울했을 것이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지만 유대 혈통인 디모데에게는 율법과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전통을 어기라고 한 적도 없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인처럼 다가갔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반대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갔다. 그가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자신

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변신의 귀재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하게 복음 전도 하나에 맞추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과 풍습은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만 독점하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유대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율법에 따라 필히 할례를 해야 하고, 율법이 정한 절기와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질책했는데 그런 바울의 태도가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특히나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에 그들은 발끈했다. 그들은 바울을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불경한 사람으로 보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바울은 한번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도 없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폐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세운다!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인간에게 가치로운 것이다. 다만 그 율법이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다. 바울은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세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예수님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한 어느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³⁷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³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⁴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고 했다. 그런데 율법을 모두 모아 엑기스를 만들면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갈 수 있을까요?~